

4월 20일(월) / 삼하16-18

▶내용요약: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생활을 시작했던(15장) 다윗은 16장에 이르러 도피생활 중 시련의 강도는 짙어간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주인 르비보셋을 포함한 시바를 만난일, 사울 집안의 시므이로부터 비난받은 일, 다윗의 친구 후새가 거짓으로 항복한 일, 사악한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과 동침케 한일이다. 17장은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 후새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게 하셨고 후새의 활약을 통해 다윗을 보존해 주셨다. 18장은 아비에게 칼을 들이던 페륵야오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압살롬,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접한 다윗이 슬피하는 장면을 소개한다.

▶질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접한 다윗의 반응은?(18장)

▶생각하기: 다윗이 겪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도 때론 시련과 고난이 찾아 올 수 있음을 본다.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것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진리이다.

4월 23일(목) / 왕상4-6

▶내용요약: 4장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치적에 대해 소개한다. 솔로몬이 임명한 내각의 명단, 이스라엘 12구역과 구역들의 관장명단, 솔로몬 치적 하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된 사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소개하고 있다. 5장은 이스라엘 최대 숙원사업인 성전건축 준비 작업을 소개한다.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건축 자재공급을 요청하고, 양국 간 동맹관계가 체결되며, 탄탄한 조직과 일꾼들을 소개한다. 6장은 왕위에 올라 4년 째 되는 때 성전건축을 시작하여 외부공사를 마치고 내부공사를 마침으로 하나님이 계시해주신 그대로의 식양대로(대상 28:11-29)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을 기록한다(37-38절).

▶질문: 솔로몬 왕의 최대 숙원사업은 무엇이었나?(5장)

▶생각하기: 솔로몬이 본래부터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번영의 관건임을 잊지 말자(잠1:7).

4월 26일(일) / 왕상13-15

▶내용요약: 13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제사를 주관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소개한다. 벧엘에서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을 향해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그 단을 향해 멸망을 선언한 사건(1-10절),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비참히 죽어간 장면,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의 원인이 된 여로보암의 쾌역한 죄악(33-34절)이 기록되어 있다.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사실,

4월 21일(화) / 삼하22-24

▶내용요약: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실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엄한 현현을 찬양, 영국을 무찌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23장은 다윗의 노년기 때로 추정되는 시간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는데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오신 사실을 노래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도운 용사들 곧 첫째 3인의 용사들과 둘째 3인의 용사들 및 30인의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한다. 24장은 밋세바와 불륜다음 가는 다윗의 실수, 인구조사를 시행한 사건, 징벌로 이스라엘에 운역이 내린 사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제양이 소멸된 장면들을 기록한다.

▶질문: 다윗이 밋세바를 취한 다음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24장)

▶생각하기: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영예나 치적을 노래하지 않고 자신의 배후에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피 흘려 헌신한 영제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한 그의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4월 24일(금) / 왕상7-9

▶내용요약: 7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인 성전건축을 완성한(6장)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에 소용될 기구들(두 놋기둥, 놋바다, 받침, 물두멍, 놋기명, 금기명)을 제작하게 되며(13-51절) 자신의 거처인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한다. 8장에 와 솔로몬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성전을 봉헌한다. 다윗성에 있던 법제가 모리아 산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고(1-11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헌사를 하는 장면,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22-53절), 참석한 백성들을 솔로몬이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9장에는 솔로몬의 기도(8:25-53절)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삼하 7장)을 다시 확인하신 내용, 변방지역에 성읍들을 건설한 사실, 조선사업의 육성으로 무역이 활기를 띤 사실(26-28절)을 기록하고 있다.

▶질문: 솔로몬은 건축한 성전에 다윗 성에서 무엇을 옮겨왔나?(8장)

▶생각하기: 법제가 성전에 옮겨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신정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와 개인은 잠시 실족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는 법은 없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한 사실,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이 가증한 우상숭배를 한 사실, 애굽이 남 유다에 침공하여 노략해간 사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이지 않은 전쟁과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한 기사(29-31절)를 기록한다. 15장은 르호보암을 이어 남 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비야가 3년의 통치, 3대왕으로 오른 아사의 종교개혁, 아사시대 남 북왕국의 동족상잔의 비극, 북왕국의 2대왕 나답의 2년간의 통치, 3대왕

4월 22일(수) / 왕상1-3

▶내용요약: 사무엘서가 사울. 다윗 왕을 중심한 역사를 소개한 반면, 본서는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최고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솔로몬(1-11장)과 이후의 분열왕국의 역사(12-22장)를 소개하고 있다. 1장은 다윗이 매우 쇠약해져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소개하고, 틈을 타 아도니야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가 반란의 부당성을 아뢰는 사건,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계승을 약속하고 솔로몬을 즉위시킨 사실을 적고 있다. 2장은 다윗이 솔로몬을 행해 율법을 준행할 것과 선악을 공정히 보응할 것을 유언한 사실, 다윗의 죽음, 부친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이 아도니야를 처형한 사실을 기록한다. 3장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지혜를 위시하여 부와 영광을 약속하신 사실, 두 창기를 향해 베푼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장면을 적고 있다.

▶질문: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3장)

▶생각하기: 솔로몬은 20세 안팎 혈기왕성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자신을 '작은 아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꿇을 줄 알았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4월 25일(토) / 왕상10-12

▶내용요약: 10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들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실,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인해 솔로몬이 진귀한 물품을 얻게 된 사실, 열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사실, 국방을 든든히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점차 쇠퇴해가다가 급기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조짐이 일어남을 소개한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취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좇은 사실,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실,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12장에서는 4대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학정을 선언한 사실, 르호보암을 싫어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집결한 사실, 여로보암이 왕국을 정식으로 수립한 사실을 소개한다.

▶질문: 솔론몬왕이 결혼한 이방여인들이 가져온 것은?(11장)

▶생각하기: 진실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솔로몬의 몰락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헛된 우상을 좇은데 있다(시115:4-9절).

바아사의 24년간의 쾌역한 통치를 기록한다.

▶질문: 남 왕국 1대왕 르호보암이 하나님 대신 섬긴 것은?(14장)

▶생각하기: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마음, 시선, 시간..을 빼앗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것은 없다.